제출자	성명	김정수			학번	2022-28981
세미나	제목	Query the Future: Predictive Analytics powered by GNN			lytics	
	연사	김정수	일시	2022. 11.16		
요약	GNN을 통해 predictive analysis를 수행하는 ,하지만 동시에 business단의 UX까지 고려한 kumo Al의 솔루션에 대한 강의였다. 비즈니스 단에서는 이제 단순히 과거 분석을 넘어 미래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고도화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proactive action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모델을 짜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허들이 많다. 이에 Kumo는 코드도 간단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GNN-based solution을 제공한다. 특히 아직 여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 RDBMS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GNN이 적합하고, 코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성능면에서도 xgboost-based model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H&M dataset). 정리하자면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속도도 빠르며 성능도 좋은 ML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할 수 있다.					
느낀점	단순히 기술의 고도화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 측면을 고려해야 진정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통 기술은 성능만 좋으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만약 많은 사용자들에게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기술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보통 좋은 ml모델이라 일컬어지는 xgboost가 아닌 GNN기반의 솔루션인 것도 신기했다. 아직 GNN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프 기반으로 솔루션을 낸다는 게 어찌보면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랩미팅 때 잠깐 다뤘을 때는 조금무리한 딥러닝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방법론이라, 성능이 좋은 것이 의외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기술을 만들 때는 성능과 사용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sup>\*\*</sup> 간단한 요약과 느낀점을 각 200자 정도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p>\*\*</sup> 본 소감문은 세미나 당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